

## 달성군 역사 왜곡 군민 철저히 농락

우리나라 첫 피아노 유입  
달성보다 부산이 3년 앞서  
100대 피아노 행사 예산타령  
말고 역사적 진실부터 밝혀라



달성군의 엄청난 역사왜곡이 군민을 철저히 농락하고 있다.

달성군이 우리나라 최초 피아노 유입이 달성 화원읍 사문진 나루터라고 엄지 손가락을 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에서 달성이 아닌 부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에서 기록이 존재하는데도 달성은 철저한 고증없이 최초 유입이란 명분으로 엉터리 관련 행사를 주도했다.

때문에 달성군과 달성군문화재단은 역사적 진실왜곡과 짜맞추기식 행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달성군 피아노 유입 역사 왜곡

달성군은 2013년 달성문화재단 주최로 한국최초 피아노 유입과정에 대한 학술 토론회의 열을 가졌다.

학술 토론회에서 "손태음 한국음악문화 대표는 1900년 3월 26일 사이드보텀(한국명 사보담)선교사를 통해 달성군 화원의 사문진 나루터로 피아노가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사보담은 피아노가 도착하기 전 1900년 3월 26일부터 3일간 피아노를 이동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미국에 있는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과 2009년 사보담의 후손들이 부산 박물관에 기증, 한국최초의 피아노 유입 사실이 밝혀졌다는 근거를 내세워 달성은 100대 피아노 행사를 만들었다.

### 부산이 먼저다

달성군의 주장에 부산이 정면 반박했다.

이 모 부산세관박물관장은 이보다 3년 앞선 1897년 제3대 부산해관장 헛트가 부산주재부영사를 겸임할 때 빅토리아어왕 즉위 60주년 기념행사를 열면서 그의 부인이 초청인사에게 피아노선물을 선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Hunt부인의 피아노연주는 아주 훌륭했다는 내용이 우리나라의 영자신문인 코리아헤럴드와 코리아타임지 등에 칼

럼을 실었던 미국인 Robert D. Neff의 칼럼 'Jonathon H Hunt'에 기록돼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네프(Robert D. Neff)와 명지대 정성화 교수와 공동 출판한 'Korea through western eyes'에도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이 박물관장은 부산항이 1876년 개항을 했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부산항을 통해 유입돼 이 시기에 피아노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달성 피아노 최초 유입 거짓(?)

이 모 부산세관박물관장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최초 피아노 유입을 강조하기보다는 시민과 접하는 과정은 이야기를 만들어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최초 유입이라는 말에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초라는 용어는 지방단체에서 사용하기는 가법게 처신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 한다고 말했다.

피아노 최초 유입지에 관한 자료는 2013년 학술 토론회의때 충분히 검증될 수 있었던 내용이다.

달성군민들은 매년 100대 피아노 행사에 수억원씩 퍼붓는 달성군의 대표 행사가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관련행사와 다국어로 된 안내방송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실제 주민 K 씨는 "이러한 사실을 수년 전부터 달성군내 일부 주민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제라도 우리나라 최초 피아노 유입지라며 전국 홍보에 열을 올리며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 달성문화재단 역사 왜곡 그만해라

최근 달성문화재단 관계자는 모 일간지의 기자회견에서 "100대 피아노음악회는 국내 최초의 피아노가 1900년 3월 26일 달성군의 사문진 나루터로 유입됐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발굴, 이를 최초로 100대의 피아노를 동원해 콘서트화한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말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달성군의 이 같은 행태가 자칫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왜곡된 역사를 사실인양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달성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최초 피아노 유입이 달성군 사문진이 아니라고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달성군민 L 씨는 "최초 피아노 유입이 부산인 줄은 알았지만 이제라도 달성군민에게 알릴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올 한해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6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청사안내 해설사 등 청사 종사원 60여명과 함께 조촐한 점심을 함께하며 한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관련기사 3면)

## 죽은 박정희가 산 남유진을 경북지사 만들까?

남유진 구미시장 지사 출마선언  
한강기적 이론 박정희 정신 받아  
낙동강 기적...경북 중흥 이론다



남유진 구미시장이 26일 오전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지방선거 경북지사 출마 선언에 앞서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추모관을 찾아 영정에 분향하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이 꿈의 도백(道伯)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남 시장은 26일 경북도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선언에서 "박정희 전대통령의 길을 따라 경북의 흥과 정신을 지키고 경북 경제의 중흥과 도민의 삶을 넉넉하게 이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남 시장은 "경북의 주요 현안인 사드보상 문제와 포항·경주 지진 안전대책, 탈원전 대책마련 등을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출범이후 보수정권의 핵심지역을 적폐의 본산이란 오명을 씌웠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인한 정신력을 이어 받은 자신이 보수의 본산인 경북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남 시장은 "보수계열의 탄핵 때와 박정희 대통령 우표취소 때도 한마디도 못하던 정치인들은 박 대통령의 혼이 살아 숨 쉬는 경북

도백의 자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경선후보 등록때 자기검증서를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시장의 이런 주장은 진보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할 보수세력의 정치인들이 역주행을 해 지역 정서에 기대거나 따뜻한 안방만 차지하려는 행태를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 계승을 전면에 내세운 남 시장은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건립 계획 당시 실무 책임자는 자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만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의 설치를 좌과거 끝까지 거부하면 포스코가 내려다 보이는 영일대로 이전해 오겠다고 말한 사실도 알렸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경북지사 출마 선언에 앞서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추모관을 찾아 영정에 분향했다.

김성용 기자

## 잠자는 대구교통카드 잔액 58억 시민에게 환원

대구시, 투명 신뢰성 관리



대구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서랍 속에 들어있는 5년 이상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 58억원을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한다.

시는 2013년 3억400만원, 2014년 3억300

만원 등 교통카드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서랍 속에 들어있는 5년 이상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도 사회에 환원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공감해 최근 금융위원회 질의를 통해 상법상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준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대구시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원은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잔액을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지정 기부해 시민들의 복지에 사용한다.

교통카드 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카드소지자의 환급요청이 있으면 교통카드사는 언제든지 환급하도록 돼 있어 시민들은 보관 중인 카드가 있을 경우 가까운 대구은행에서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홍성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시민들의 잠자는 돈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공익법인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동계올림픽 성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빛낸다

경북3일차 안동 도착  
경북도청 신도시 경유  
문화유산 하회마을  
세계에 재조명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가 봉송 56 일차인 26일 안동을 찾아 한국전통문화의 축 제 속에서 성화봉송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달 1일 인천에 도착한 성화는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도, 충청도 등에 이어 영주, 봉화를 거쳐 경북도 일정 3일차 안동에 도착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밝힌 성화의 첫 주자로는 인라인스케이팅선수였으나 올림픽 종목에 없어 아쉽게도 올림픽 꿈을 이루지 못한 우효숙 선수가 활약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환대 속에서 시내 전역을 밝힌 성화는 오후 4시경 경북도청 신도시를 찾았다.

도청구간 성화봉송은 특별히 권영세 안동 시장과 이현준 예천군수의 성화봉 합동 점화 이벤트를 통해 안동시민과 예천군민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내며, 시작됐다.

화합의 불씨는 경북경찰청, 풍천중학교를 지나 솟을삼문을 통해 도청정점으로 향했다.

도립국악단 판국과 독도사랑스포츠클럽의 태권무 등 성화맞이 이벤트 속에서 도청직원 300여명이 함께 평창 성화봉송을 환영하고 대회 성공기원을 응원했다.

도청 마지막 주자로는 김장주 행정부지사로부터 성화를 전달받은 신현수 경북도사회

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활약했다.

경북도는 생애 단 한번 올라 말까한 특별한 동계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평창조형물을 배경으로 도청전정에 포토존을 만들어 이날 함께 한 모든 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

봉송구간인 경북도 청사를 살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염원하는 경북도의 많은 노력과 온정을 느낄 수 있다.

도청 안민관과 동라관 전면을 감싼 평창 대형현수막, 수많은 가로등, 각종 평창조형물 등 경북도는 청사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동계올림픽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평창성화는 마지막으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하회마을로 향했다.

청사조형으로 수놓은 하회마을 입구를 들어선 성화는 양진당 뜰에서 양진당과 충효당 종손과 유류 100여명의 환영을 받은 후 차전 놀이와 함께 만송정 숲을 지나 아름다운 부용대 위에서 환하게 비추었다.

성화 불꽃은 안동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인 마크내과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대리에게 이어졌으며, 성화봉송 축하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관람객들의 환호 속에서 임시 거처대에 안치됐다.

성화봉송 축하행사장에서는 안동의 전통놀이인 선유줄놀이로 수놓은 부용대의 아름다운 절경을 무대배경으로 난타공연, 장승 퍼포먼스, 하회별신굿탈놀이, 올림픽놀이단 율동 공연 및 성화봉송 프리젠틱 파티너사인



코카콜라의 LED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등 다양한 축하행사로 성화봉송과 성화안치를 축하했다.

특히 이날 성화 안치시 선유줄놀이가 불꽃과 오륜기 질라인 하강 연출은 올림픽을 더욱 빛내는 특별한 이벤트로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경북도민과 안동시민의 뜨거운 정, 그리고 경북안동의 전통문화를 다양하게 연출하며, 보여준 안동시 성화봉송은 화려한 불꽃놀이

로 마무리 됐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경북도를 방문하신 422명의 성화봉송주자들과 관계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는 이회범 평창 조직위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며, "특히, 안동하회마을은 지난 1999년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방문하고 2005년에는 미국 부시대통령이 방문해 국제적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을 통해 또 한번 안동의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더욱 화려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지닌 의미가 깊다. 남은 일정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우수한 문화를 담아가고 성화봉송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다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북구간 성화봉송은 27일 구미에 이어 1월 1일 포항, 2일 경주 일정을 남겨 두고 있다. 김용구 기자

## 경북도,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닷 올려



국가 신약개발 프로젝트 선도할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포항유합기술산업지구내 2905억원 투자, 신약개발 연구

경북도는 26일 도청 화랑실에서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경북도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준공됨에 따라 세계 신약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김관용 지사 주도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지방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과학기술전략연구소와 함께 진행해 왔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포항유합기술산업 지구에 총 2905억원을 투자,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세포막단백질을 연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AI, 빅데이터 등을 연계해 기존의 신약단지와는 차별화된 기반 신약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주요사업은 3대 연구거점으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가속기신약연구소 △비즈니스 융복합센터를 건립하고 3대 기반시설로 동물 대체시험평가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신약중심연구병원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기존 신약개발과는 다른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신약개발 세포막단백질연구에 특화된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신약개발 연구는 세포막단백질 연

구가 신약개발에서 약물 표적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었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연구가 불가능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3차원적 입체분석을 통해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포막 단백질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이러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막단백질의 고해상도 3차원 구조 연구를 비롯해 막단백질 특성 및 기능 연구, 제품개발 등 응용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독일 등 신약개발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AI,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대표이론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신약을 설계하는 '가속기신약연구소'도 설립한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평균 10~15년, 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가속기신약연구소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구현기술을 활용해 6대 질환(암질환, 심혈관, 감염성질환, 뇌질환, 대사성질환, 희귀질환)과 관련된 신약설계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신약후보물질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희귀질환 분야에 관한 연구는 암질환, 당뇨병질환 등 연구가 활발하고 수익성이 높은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활동이 미약한 분야이기에 공익성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학연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연구중심기업 육성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공간인 '비즈니스융복합센터'도 건립한다.

비즈니스융복합센터에서는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가속기신약연구소로부터 도출된 후보물질, 플랫폼 기술 등 기존 신약연구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연구결과, 기술 등을 지원해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존 신약개발단지와는 다르게 국내신약단지에서는 연구가 어려웠던 세포막단백질 분야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해 입체적 막단백질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인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자료 축적 및 신약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기존 조성된 대구 첨단복합연구단지 등 신약단지 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줄기세포, 인공장기, 가상현실 등을 활용하는 동물대체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해 기존 신약단지의 동물임상시험시스템과 역할분담 및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아울러 용역결과와 효율적인 사업화를 위한 '가속기 활용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용구 기자

## 김장주 행정부지사 종사원들 노고 격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6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청사안내 해설사 등 청사 종사원 60여명과 함께 조촐한 점심을 함께하며, 한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청원경찰은 1일 3교대로 24시간 365일 쉬 없이 청사 방호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환경미화원들은 부지 245천㎡와 건물 연면적 143천㎡의 광범위한 규모의 내·외부 청소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사안내 해설사는 방문하는 내방객들과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신청사 방문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맑은 미소로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함께 자리한 환경미화원 모씨는 "도청 이전으로 지역민에게 일자리를 줘서 감사드리며, 청소를 하다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도청을 관리하는데 나도 한 몫 한다는 뿌듯함도 있다"며, 즐거워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올해신청사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과 민원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을 할 수 있었다"며, 따뜻한 격려와 고마움을 전했다. 김성용 기자

天 눈부신 하늘의 햇살

地 싱그러운 땅의 기운

人 정성스런 농부들의 땀방울

경북고향장터



www.cyso.co.kr

하늘과 땅 그리고 농부들이 권합니다.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하늘의 햇살과 땅의 싱그러움을 담아 정직한 농부들이 재배한 품질 좋고 우수한 경상북도의 농·수산물을 중간유통 단계없이 직거래로 소비자와 연결해주며 경상북도가 운영하기에 더욱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우리 먹거리 장터입니다.

1644-4245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로 안전한 먹거리 보장



# 대구가톨릭대병원도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 '논란'

### 한림대 성심병원 이어 대구가톨릭대 병원서도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춤 강요했다는 제보가 나와

최근 한림대 성심병원에 이어 대구가톨릭대 병원에서도 '간호사 장기자랑'이 있었고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춤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호사 대나무숲' 페이지에 "대구가톨릭병원에서도 한림대 성심병원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장기자랑이 있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간호사들이 짧은 치마 등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신부

님 앞에서 강강을 추고 EXID 위아래 춤을 추다"고 했다.

병원 측은 퇴사하고 싶은 간호사에게는 "춤을 추면 퇴사하게 해줄 테니 춤을 춰라"고 강요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병원측이 이사를 할 때도 간호사들에게 이삿짐을 옮기게 하는 등 사적인 업무 지시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A 씨는 "사적인 업무와 조과근무 등을 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연장수당,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고 병원 측은 임금 규정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를 강요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병원이 필요한 일이면 다 해야 하는 비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장기자랑의 경우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공연인 데다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SNS에 올라온 사진은 2015년 병원 비전 선포식 행사와 지난해 12월 간호처 내부 행사 당시의 사진으로 보인다"면서 "확인 결과 강제로 장기자랑을 지시한 일은 없었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회의를 거쳤는데 그 부분이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 신부 사택을 옮길 때 이삿짐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병원 이사를 할 때도 개인 소지품 등만 직원들이 옮겼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달에도 동일한 SNS 페이지에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고 야간근로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호사 대나무숲' 페이지에 대구가톨릭대병원도 '간호사 장기자랑'이 있었다는 제보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간호처 내부 행사 당시 간호사들이 공연을 하는 모습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돼 병원에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한 상태"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병원에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김진희 기자

## 박인규 DGB금융 회장 '보복 인사' 논란

### 등기임원 3명 퇴진 결정 임원 12명 중 9명 교체

DGB금융그룹은 26일 임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제외한 등기 임원 3명의 퇴진을 결정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사퇴 압박을 받은 박 회장이 자신을 제외한 등기 임원을 해임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GB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날 대구은행 부행장보, 지주 부사장보 이상 임원 12명 가운데 9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노성석 DGB금융지주 부사장을 비롯해 임원 오 대구은행 부행장, 성무용 대구은행 부행장 등 지주와 은행 등기임원 3명은 모두 퇴임한다.

이들 3명은 지난해 DG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박 회장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다. 보복성 인사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들이 한꺼번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장영철 DGB금융지주 부사장보 겸 대구은행 부행장보, 문홍수 DGB금융지주 부사장보, 김경환·윤이열·성석기 대구은행 부행장보 등 주요 경영진도 물러난다.

비자금을 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관행이었던 만큼 자신을 제외한 등기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

린 인사 조처다.

앞으로 해임된 임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인 만큼 은행 조직 내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비자금 사건 폭로가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박 회장을 빼고 등기 임원 3명 전원이 물러났다"고 말했다.

은행 내부에서 박 회장의 경쟁자를 없애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경찰 수사로 압박을 받아온 박 회장 주변에서 '호위무사'로 나선 일부 임원들은 이번 인사에서 대부분 승진해 '보복 인사'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임원 3명이 승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회장 모교 상고 출신 임원 6명도 이번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 조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정기 인사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3개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대구은행 제2본점 앞에서 "박인규 회장 직무정지와 해임"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진희 기자



대구 시민단체가 26일 대구은행 제2본점 앞에서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 대구 시내버스 연말 급행 5개 노선 연장운행

### 연말 29~31일 3일간 최대 새벽 1시 30분까지 운행

2017년 연말 시내지역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내지역에서 관내 주요지역을 운행하는 급행 5개 노선(1, 2, 3, 5, 6)에 대해 시내지역을 통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익일 새벽 1시 30분(29~30일 새벽 12시 30분, 31일 새벽 1시 30분)까지 30분 배차간격으로 연장운행한다.

올해 연말인 오는 29일부터 31일은 야간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금, 토, 일요일이며 특히 31일은 2017년 제야의 타종행사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과 연계해 추진됨에 따라 시내지역에 심야시간대까지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말 시내지역의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급행1, 급행2, 급행3, 급행5, 급행6번의 5개 노선에 대해 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 한시적으로 시내버

스 연장운행을 시행한다.

특히, 31일은 제야의 타종행사가 익일 새벽 1시경까지 진행돼 시내버스와 함께 도시철도 1, 2호선이 반월당역을 기준으로 새벽 1시 40분까지 연장운행하고 도시철도 3호선은 명덕역을 기준으로 새벽 1시 55분~1시 59분으로 연장운행해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됐다.

연장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들은 현재 시내지역에 정차하는 정류소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 중 급행1, 급행3, 급행5, 급행6번 노선은 오는 31일에 제야의 타종행사 교통통제로 일부구간 우회운행하나 가까운 2.28기념중앙공원 정류소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연장운행에 대한 안내는 두드리스(053-120) 및 버스운영과 상황실(803-4851~4853), 교통상황실(803-4731)로 문의가 가능하며, 시누리집(<http://daegu.go.kr>) 및 노선안내누리집(<http://businfo.go.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여은 기자

## 구미 양계장서 불... 10시간 25분만에 꺼져

구미시의 한 양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시간 25분 만에 진화됐다.

2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35분께 구미시 고아읍의 한 양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비닐하우스로 된 양계장 5개 동 중 3개 동과 내부에 보관 중이던 농기계, 인근 샌드위치 패넬로 된 고물상 건물, 헌 옷과 폐지 등을 태워 30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이 나자 구미소방서는 소방차 19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큰 불길은 화재 발생 5시간 20분 여만인 지



지난 25일 오후 5시35분께 구미시 고아읍의 한 양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비닐하우스 양계장과 인근에 샌드위치 패넬로 된 고물상 건물을 태웠다.

난 25일 오후 10시 55분께 잡혔지만, 인근 고물상에 쌓여 있던 헌옷더미에 옮겨붙은 불이 꺼지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빈 양계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은진 기자

##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한의사 '덜미'

### 대구 서부경찰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과 허위로 관련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3)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알고도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준 한의사 B(48)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지난 8월 18일까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고의로 서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돌을 시도하면 좌회전해 사고를 내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보험금 5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사 B씨는 이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16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을 작성해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A 씨 일당이 보험사에 피해 금액을 모두 갚아 합의했다"며 "A 씨와 B 씨가 금전적으로 공모한 부분은 없어 보이고 한의사에 대해서는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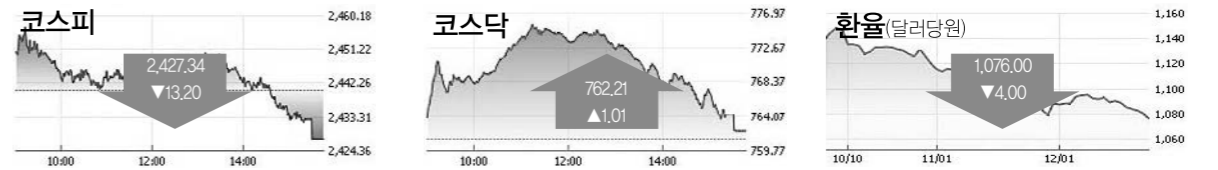
박광덕 기자

## 보복운전, 도로위의 폭력행위입니다

정말 좋은 운전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 시소한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와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운전사 입장에서도 한번쯤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미안함과 고대움을 표현한다면 보복운전은 서로를 지키는 배려운전으로 승화 될 것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부 강력규제에도 분양폭탄 계속

내년 41만7000가구  
대구 1만6567가구  
경북 1만2662가구

내년부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시행되지만 분양물량은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민영아파트 분양 규모는 전국 409개 단지에서 총 41만 7786가구에 이른다.

올해는 황금연휴·초기대선·부동산규제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에 잦은 혼란을 겪었다.

예정물량이 실적으로 채워지지 못해 이월되면서 올초 계획보다 적은 물량이 공급됐다. 2018년은 예년(5년, 2013~2017년) 분양실적 물량(30만7774가구)과 비교해 약 36%(11만122가구) 많은 가구가 예정돼 있다.

특히 분양시장이 호황기였던 2015년 분양 실적(43만4384가구)과 맞먹을 정도로 계획물량이 많다.

반면 일부 지역은 공급과잉·미분양 리스크를 겪고 있는 데다 중도금 대출규제·신DTI 적용·금리인상 등으로 수요가 위축돼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23만5430가구·지방 18만2356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선 13만9257가구가 공급되며, 과천시와 분당 물량이 가장 많다. 과천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과천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연기된 것이다.

이밖에 △서울 5만7208가구 △인천 3만 8965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은 부산이 4만5158가구가 가장 많은 분양예정 물량이 집계됐다.

이어 △충남 2만2068가구 △경남 1만7962가구 △대구 1만6567가구 △광주 1만5408가구 △강원 1만3791가구 △경북 1만2662가구 △울산 9116가구 △대전 8927가구 △충북 8887가구 △세종 5504가구 △전남 3297가구 △전북 3009가구 순이다.

이현수 부동산114 연구원은 "올해 분양권 판매제한 확대 등으로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2018년은 지역별로 청약결과가 갈리는 양극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의성군 영상회의실에서 김주수 군수가 김준상(왼쪽) ㈜대건레미콘 대표에게 '2017년 올해의 기업 선정패'를 수여하고 있다.

## 의성군 '올해의 기업' (주)대건레미콘 선정

김준상 대표, 지역인재 양성  
불우이웃돕기 지역발전 앞장

의성군은 '2017년 올해의 기업'에 ㈜대건레미콘(대표 김준상)을 선정했다.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된 ㈜대건레미콘은 1999년 11월 다인농공단에 입주했다. ISO 품질인증 획득, 지역내 근로자 채용 및 창의적인 기업경영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한 몫하고 있다.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기탁은 물론 2000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 이상을 기탁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과 불우이웃돕기도 앞장서 왔다.

'올해의 기업'은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친기업 정서 확산으로 기업유치 촉진과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은 신안상사, 작년에는 ㈜한승공조가 선정됐다.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한도 우대, 근로환경 개선사업 및 고용보조금 지원,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주수 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 및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내년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노반공사 착공

한국철도시설공단

3조7301억예산 투입  
도담-안동구간 복선  
안동-영천구간 단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내년 1월부터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의 노반공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은 총사업비 3조7301억원이 투입된다.

총연장 145.1km에 이르는 선로를 고속화·전철화 하는 사업이다.

도담-안동 구간은 복선, 안동-영천 구간은 단선으로 계획됐다.

안동-영천 구간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2011년 12월) 시 단선전철 개통 후 수요증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이 예상되는 오는 2036년에 맞춰 복선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얻어 노반공사는 우선 복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상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올해까지

완료해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반공사를 실시한다.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되면 시속 250km/h 열차가 투입돼 현재 4시간39분이 소요되는 청량리-영천 구간을 1시간50분만에 이동(2시간 49분 단축)할 수 있어 경북 내륙 지역 경제, 문화, 관광,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이수형 건설본부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투자로 철도건설 효율성을 극대화해 완벽한 품질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봉사가 국민들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 LH,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32곳 본격 착수

포항 최첨단 스마트 기술 활용  
시민 행복한 스마트 도시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총 68곳 중 32곳의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시범사업은 지난 14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68곳이 선정됐다. LH는 청년주택 공급, 매입임대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사권 및 관광복합단지 개발 등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로 총 32곳에 참여하게 된다.

LH는 독자적인 업무 노하우와 풍부한 사

업 경험을 토대로 지역 특화 자산을 100% 활용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지구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경남 통영'은 폐조선소 부지를 글로벌 관광형 복합단지 조성해 조선업 불황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킬 전망이다.

'충남 천안'은 천안역 인근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과 그 주변을 경제·교통의 중심인 복합스마트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와 '포항'은 실시간 주차안내, 지역안내 키오스크 등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한다.

뉴스

## 대구지역 내년 건설공사 규모 6조2000억 이상 전망

대구시는 내년 지역 내에서 착공 예정인 건설공사 규모가 6조2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26일 전망했다.

대구시는 내년 신규 착공예정인 공공건설공사(공사비 1억원 이상)는 568건 8431억원으로 올해 667건 8644억원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정부의 SOC예산 감축정책에 따라 공공건설공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년 대비 감소 규모는 2.5%가 감소한 213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건설공사 분야에서는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준비 중인 아파트 등 대형 주택건설공사는 35개단지(2만4592세대)에 공사비는 5조원 이상, 3000㎡ 이상인 상가 등 비주거용 공사는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다만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9

월 발표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금리인상,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 등 여러 가지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 착공 여부는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용적률 인센티브(15%)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가 사업 수주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감소된 공공공사의 영향으로 건설경기 침체되지 않도록 공공공사 건설사업 신속 집행 △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외 공동도급 우선 시행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촉진(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률 85% 이상)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집중한다.

이상하 기자

## 공정위 "못받은 하도급금 신고하세요"

대구·경북권 등 5개 권역  
10곳 신고센터 설치 운영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26일 운영을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51일 동안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5개 권역에서 10개소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기존 공정위의 지방사무소 외

에 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도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46일과 47일간 운영했던 신고센터는 186건 284억원, 156건 274억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신고센터 운영 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로 해금 하도급대금을 지연시키지 말고 설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여은 기자

## 롯데백화점 대구점 메디실드 목견인기

항균 처리된 원단 사용  
오래 써도 세균오염 덜해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무의식적으로 목이 움츠러 들어 근육이 경직되기 마련이다.

이때 근육을 잘 풀어주지 않으면 뭉치게 되어 잦은 근육통이 찾아올 수 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9층 생활가전 매장에서는 목의 회복과 목의 뭉친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휴대용 마사지 기구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점 8층에 위치한 헬스&뷰티전문 파나소닉 매장에서는 목에 두르는 모양의 목전용 마사지기인 '메디실드 목견인기CT-1000'을 추운 겨울철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찾는 고객이 많아 선호도가 높다.

'목견인기 CT-1000' 제품은 '디스크'라고 알려진 추간판탈출증과 현대인의 '고질병'인 거북목 증후군 등 목(경추) 관련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로 착용했을 때 목을 똑바로 펴준다.

탑재된 5단계 진동 마사지 기능을 사용하면 목·어깨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다.

사용 시 공기를 주입해 쓰는데, 수동이 아닌 버튼 터치로 공기 주입과 배출이 가능하다.

항균 처리된 원단을 사용해 오래 써도 세균오염이 덜하다.

차량용 케이블이 포함돼 장시간 운전 후 휴식을 취하는 동안 사용할 수도 있다. 완충 시간은 약 2시간이다. 한 번 완전 충전하면 9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대구점 파나소닉 스페니처는 "충전타입이라 휴대가 간편해 캠핑 또는 여행지에서 뭉친 목 근육을 푸는 데 좋으며, 진동모드는 다섯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백화점 대구점 8층 가정관 파나소닉 매장에 입점해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격은 27만 9000원이다.

김진희 기자



롯데백화점 대구점 8층 생활가전관 '파나소닉' 매장에서 겨울철 목에 뭉친 근육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풀어줄 수 있는 휴대용 안마기 '메디실드 목견인기CT-1000'을 선보이고 있다.

# 경주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최우선”

## 2018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회 원활한 재정집행·지역경제 활력

경주시가 2018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실과소별 보고일정에 돌입했다.

시는 탄탄한 역사문화관광도시의 기반위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경비 투자 확대, 인구 증가,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최우선 과제로 26, 27일 이틀간 대회의실에서 '2018년 주요업무보고회'를 시작했다.

첫날인 26일 이른 오전부터 문화관광실, 왕경사업본부, 보건소 등 11개 부서의 보고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튿날인 27일에는 도시개발국, 맑은물사업본부의 보고에 이어 오후에 시민행정부, 공보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감사관 소

관의 업무 보고가 이뤄진다.

이번 보고회는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사업 발굴, 내년도 국도비 선제적 대응,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및 신규시책 발굴 등 260여개의 부서별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역점사업에 대한 부서간의 업무 공감대 형성과 사업추진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을 필두로 경주교도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강소기업 유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행복한 부자경제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논의됐다.

특히, 행정공백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오전 7시 3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매년 1월 중순에 진행하던 주요업무보고회를 한달가량 앞서 시행함으로써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내년 추진 사업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조기



발주를 통해 원활한 재정집행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최양식 시장은 “2018년은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역점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

는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도적적인 신규사업 구상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윤용찬 기자

## 경주시, 31일 신라대종공원에서 ‘제야의 종’ 타종

### 25년만에 시내권 타종행사 국태민안 기원 시민 대화합

경주시가 오는 31일 저녁 9시부터 신라대종공원에서 '2017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갖는다.

1992년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 제야의 종 타종 이후로 시내권에서 진행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로는 무려 25년 만이다.

1200여년전부터 서라벌을 울려온 성덕대왕신종의 웅장한 울림과 예술적 가치를 그대로 재현한 신라대종을 통해 경주의 새로운 천년도약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역사적인 타종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저녁 9시 시민콘서트를 시작으로 제야의 종 타종식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지역자선공연단체인 하늘호, 관악동호회 경주빅밴드, 앙상블 씬, 감포고등학교 방과후합창단, 동국대와 한동대 비보잉 공연을 비롯한 초대 가수 공연 등 한해를 마무리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타종식 본 행사는 신라고취대 행렬과 공연을 시작으로 정순임 명창의 판소리 공연, 타



종 기념식 낭송, 경주 10대 뉴스와 새해소망 영상, 500인 경주시민 대합창에 이어 64명의 시민대표가 참여해 총 33회의 타종이 거행된다. 타종과 동시에 레이저쇼, 불꽃놀이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소망과 염원을 담아 만든 2000여개의 LED 소망풍선을 날려 제야의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행사의 마지막은 경주문화재단, 경주시립합창단, 경주음악협회를 중심으로 경주시민 500여명이 '희망의 나라로'를 합창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노래로 하나되는 대화합의 장을 연출한다.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 봉황대 앞 잔디광장에서 각종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올 한해 뜨거운 인기를 끌며 새로운 야간문화콘텐츠로 도약한 봉황 프리마켓 행사를 비롯해 새해소망 가훈쓰기, 연만들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과 떡국, 어묵탕 등 먹거리 나눔행사가 진행된다.

최양식 시장은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새롭게 탄생한 신라대종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무엇보다 뜻깊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바라는 성덕대왕신종의 발원을 이어 담은 신라대종의 큰 울림으로 온 세상이 평화와 사랑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포항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최종점검

### 이강덕 시장 주재 보고회 방문객 안전 등 준비 만전

포항시는 26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국내 대표 해맞이 축제인 제20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종 준비상황 보고회를 갖고 최종점검의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깨끗하고 안전한 축제조성에 중점을 두고, 많은 방문객들이 포항 호미곶에서 새해의 희망찬 기운을 얻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포항문화재단에서는 전국에서 보내준 따뜻한 정에 대한 신년 감사인사를 전하는 대형 퍼포먼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과 무술년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형연 날리기 시연 행사 등을 추가해 보다 내실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상황실을 구성해 축제기간 중 상시 운영하는 한편 오는 30일 관내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최종 현장 안

전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축산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대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가금류 신규입식 금지조치 △사산 소독 활동 △방역물품(생석회, 소독약품, 방역용 발판메트 등) 지원 △행사 후 소독활동 등 축제 개최 전부터 종료 후 방역대책까지 수습해 AI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채화행사, 1만명 떡국 나눔행사 진행상황 등 연계프로그램 및 축제홍보, 임시주차장 조성 등 축제 전반에 걸쳐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강덕 시장은 “올해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이 안전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각 부처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미곶의 빛, 세계를 밝히다’의 주제로 펼쳐지는 제20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은 오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개최된다. 강동진 기자

## 포항 남구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상

### 경북지사 표창 수상 총 140회 3400여명 교육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지난 22일 경주 코모드호텔에서 '2017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경북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지역주민,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연중 순회보건교육, 건강

관리사업과 연계해 아토피·천식 예방교실을 140회 3400여명에게 교육함으로써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앞장섰다.

올해 안심기관 77개소 운영과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며 아토피 진단 설문지 선별검사 5200명도 실시했으며,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등으로 총 7회 2355명에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아토피예방관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교육 홍보했다.

한편, 아토피 유소견자에게는 아토피예방비누, 보습제 및 수분섭취를 위한 물병 등을 제공했다.

또한, 남구보건소에서는 건강박람회, 불빛축제 등 각종 행사시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남구보건소 이영희 건강관리과장은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세차녀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복지사업과 아토피·천식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동진 기자

## 일진-일진베어링, 희망나눔 성금 2천만원 기탁

일진그룹 내 경주지역업체인 ㈜일진(대표이사 이경수)과 ㈜일진베어링(대표이사 하정환)은 26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2018 나눔캠페인' 성금 2000만원(각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일진그룹은 자동차부품사업장으로 경주에 ㈜일진, ㈜일진베어링과 ㈜일진글로벌이 있으며, 휠베어링, 로드, 링크, 도어체크 등 자동차 핵심부품을 생산해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일진그룹은 2011년부터 매년 2000만원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각종 후원과 봉사활동 등에 앞장서

며 함께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날 시청을 방문한 일진베어링 하정환 대표와 일진 정대영 공장장은 “경기불황 속에서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어렵지만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선도해 직원 모두 나눔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을 나는 소외계층을 위해 임직원 모두 앞장서서 매년 봉사활동 및 기부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과 동행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용찬 기자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산불 조심 또 조심!

농·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과실로 인하여 산림에 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불신고는  
119 또는 270-8282

포항시



### 구미 김천 영천 고령 군위 성주 칠곡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 칠곡군,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대상'



칠곡군은 26일 '2017년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는 경북 23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칠곡군은 새마을운동 중점시책 6개 분야 16개 항목 28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새마을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아라모 마을회관 준공 및 티그라이주와의 MOU 체결하고 사랑나눔 실천 등 시대변화의 흐름에 발맞춘 새마을운동을 추진했으며 생필품 전달과 행복보급자리 만들기 사업 등이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노균 기자

#### 구미시, 장애인등급제 우수기관 선정



구미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등급제 시범사업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구미시가 선정됐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변화에 적극 참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이은진 기자

#### 영천시, '사랑의 딸감 나눠주기' 행사 가져

영천시가 겨울철 생활이 어려운 홀몸노인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겨울철 난방용 딸감을 공급했다.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읍·면·동에서 선정된 32가구에 1세대 당 약 2톤씩 지난해보다 20여톤 증가한 총 60톤의 딸감을 전달했다. 사랑의 딸감은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를 장작용으로 자른 것으로 1가구당 1~2톤 정도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투입해 수요 가구에 차량으로 직접 전달한다. '사랑의 딸감나눠주기' 행사는 2008년 시작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기림값 상승으로 화목보일러 공급이 확대돼 딸감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은하 기자



## 구미시, SK실트론 4천억 투자유치

경북도-구미시-SK실트론 투자양해각서 체결

경북도와 구미시는 26일 경북도 대외통상교류관에서 김관용 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변영삼 SK실트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SK실트론과 투자금액 4000억원, 신규상시고용 150명 등을 내용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K실트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핵심 기초소재인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반도체 고객의 공정 미세화 전환에 맞춰 제품 대응력을 강화하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산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300mm 웨이퍼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세계 4위를 기록했던 SK실트론은 앞으로 매출액 1조원 돌파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웨이퍼는 자동차, 인공지능, 전자제품 등 산업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스마트폰 고도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의 신규시장 창출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SK실트론이 신규 투자에 나선 것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웨이퍼 시장도 호황을 맞았



기 때문에 풀이되며, 시장 기관들 또한 글로벌 웨이퍼의 공급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되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SK그룹은 올 8월 LG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SK실트론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 고객사의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고객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 국가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의 새로운 파트너로 SK실트론의 대규모 투자를 43만 구미시민과 함께 축하한다. 아울러 글로벌 웨이퍼 시장에서 SK실트론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미시는 2017년 8개사 8239억원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포함, 총 9992억원의 투자로 민선 4기(2006년) 이후 지난 10년간 16조20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다.

이은진 기자

## 김천시, 100년 숙원사업 해결... '복전터널 확장'

복전터널 2차로 확장 실시 설계 위한 실무협의회 가져

김천시의 100년 묵은 숙원사업인 '복전터널'이 확장된다. 김천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와 '복전터널 2차로 확장 실시설계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실무진들은 복전터널의 설계방향, 향후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시는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널 확장 공사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5%, 김천시가 25%를 부담한다.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에 있는 복전터널은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설치된 터널이다. 개설 당시 시내에서 직지사 방향 터널은 왕복 2차로, 시내 방향은 1차로로 만들었다. 시내 방향 1차로 터널은 폭 3.3m, 길이 62m로 개설돼 주말과 행사철 직지사, 직지문화공원을 찾는 차량이 많아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어왔다. 터널 내부 콘크리트의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중앙부처를 수 차례 방문한 결과, 지난 5월 철도공단과 복전터널 확장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시내 방향 1차로를 2차로로 넓히는 것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복전터널 확장은 김천의 관광 명소인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 김천시, 경북도 국가상징 시책추진 평가 장려상 수상



김천시는 2017년 경북도 국가상징 시책추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동안의 태극기 게양률 제고, 국가계양대 정비 실적 및 국가상징 자체 특수시책 개발여부 등을 평가한 것으로 김천시는 2015년 장려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천시는 국가상징(태극기) 선양 조차의 일환으로 태극모양의 바람개비 및 태극트리틀을 시정사 내에 설치해 내방객들도 하여금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일 기간 대형 태극기 이미지의 전광판 홍보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 실천에 앞장서 왔다. 또한, SNS(페이스북, 카카오톡)를 활용해 전 시민의 국경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태극기 달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국경일 전후로 주요 도로변에 가로등을 게양해 애국심 고취 및 나라사랑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광복72주년 기념 '독도사랑,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및 '차랑용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전 시민이 하나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해 왔다. 한편,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정신이 조금 더 확산되기를 바라며, 국기 게양관리 및 홍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 성주군, 지역인재육성 명문 반석 올라

201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서울대 2명, 연세대 1명 합격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등 일부 수도권 주요 대학 수시모집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성주군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2018학년도 대입수능 수시모집에서 국내 주요대학 수시모집에 응시해 서울대 2명, 연세대 1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지역 교육분야는 축제 분위기로 한껏 고조돼 있다. 성주군에서는 서울대 합격자 2명, 연세대 합격자 1명이 배출됐으며, 성주여고 역시 수도권 지역 대학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어 지역 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3명은 명문대 입학은 목표로 학교 정규학습과 함께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별고을교육원에 입교해 교육원 학습을 병행해, 꾸준히 집중 집중관리한 결과 국내 최고의 명문대에 최종합격하는 눈부신 성과를 얻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할 수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학교 및 교육원 관계자와 학부모는 물론 한 치의 게으름 없이 열심히 잘 따라준 학생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전하며, 이제 성주군 교육도 전국 상위그룹과 당당히 경쟁하는 명문의 반석에 올랐으며, 앞으로도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매진해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약속했다.

박노균 기자

#### 성주군 나눔봉사단 성금모금 거리캠페인



성주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에서는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성지군지부 앞에서 성주군청 희망복지지원단,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2018 나눔캠페인의 홍보와 성금모금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주 군민은 물론이고 성주 참외로타리클럽 회원일동 (50만원), DGB대구는 행 성주지점 직원일동 (200만원), 동원건설 대표 성수경(100만원), 성주육상회(연탄2000장), 지역사회보장 실무 협의체 회장 이원기(떡국 100kg), 부창설비 김치수(보일러 1대) 등 현금 및 현물 기탁이 이어져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또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내 어린이집 원생 150여명이 참여해 모금에 동참해 당일 1200만원을 모금했다. 이날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역모금의 핵심 기반인 풀뿌리 개인기부 확대를 통해 연말연시 모금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기부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의 작은 기부가,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돌아옵니다. 어려운 이웃은 언제든 알려주시고 내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성금 및 현물 기탁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성주군청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문의 바랍니다.(054-930-6241~6)

박노균 기자

#### 군위군 "신나는 겨울문화체험에 빠졌어요"

드림스타트, 영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겨울문화체험

"눈썰매도 타고 큰 바다 물고기도 보고 겨울이 정말 신나요" 겨울문화체험에 나선 어린이들이 추운날씨에도 지칠 줄 모르고 눈썰매장을 누비고 다녔다. 군위 드림스타트센터는 지난 19일 관내 1~3학년 등 저학년 35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을 맞

아 대구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메리와 마녀의 꽃'을 관람하고 대구신세계아쿠아리움에서 신나는 바닷속세계를 관람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영유아와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대구 이월드에서 눈썰매타기와 눈사람 만들기 등 신나는 겨울왕국체험을 했다. 군위드림스타트는 경제적, 환경적 어려운 여건으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년 방학을 맞아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 영천시,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최우수 기관

영천시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서 경북 최우수 기관임을 입증했다. 영천시 보건소는 지난 22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경북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천시 보건소는 2017년 한해 동안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6개소를 운영해 경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한 교육지원, 알레르기 질환 환자 선별 설문조사, 천식 응급키트와 홍보물품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인형극 '깔끔맨과 간질간질 마녀', 아토피·천식 힐링 캠프를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알레르기 질환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교육용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지식수준 향상은 물론,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 25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실적과 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했다. 조명재 영천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 고령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최우수상'

고령군은 지난 22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경북도 '2017년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군단위 단독으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알레르기 질환의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심기관으로 선정·운영하고 있는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알레르기질환 안심기관 및 참여학생 비율, 치료율과 결석률, 교육·홍보실적, 우수사례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관내어린이집 전체가 안심기관으로 참여한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 최우수 기관상과 함께, 아토피 예방 그림일기 공모전에 참가한 이예린 원생(다산어린이집)이 어린이집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관수 보건소장은 내년에도 알레르기 질환 예방 조기발견, 적정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로 진행을 억제하고 악화방지로 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올바른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정보 제공과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안심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조은연 기자











기준 초과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100여개 항목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 준수



경주지진의 63배에도 끄덕없는  
내진설계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